

**내 눈을 여시는 예수**  
**The Risen Jesus Christ Opened My Eyes**  
(누가복음 Luke 24:13-16, 27-35)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부터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인물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Since last week our pastors have been delivering a series of sermons with the theme of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We are discussing how these different characters came to meet with the risen Jesus and spent their lives testifying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what this all means to us today. As a second in the series, let us share today the story of the two disciples who were heading to a place called Emmaus after Jesus Christ was risen.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3 절을 보면,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이라고 이 두 제자를 설명합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갔던 날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러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달려왔을 때 이 두 제자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사도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event described in today's text is supposed to have happened on the evening of Jesus' resurrection. The two disciples were on the road to a village called Emmaus, about 11 km west of Jerusalem. Verse 13 describes these two disciples as "two of them in that day." It is the day when the women went to the empty grave after Jesus was resurrected. When Mary Magdalene and other women came to tell the Apostles about the empty grave of Jesus and His resurrection, these two disciples were among them. In other words, they were disciples who had followed Jesus closely and they were still together with the other Apostles after His death on the cross.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떠나 서쪽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10 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빈 무덤에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던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These two men were going west toward Emmaus,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Jerusalem. They were supposed to go to Galilee as Jesus commanded. According to Matthew 28:10, Jesus told the women in the empty grave to go to tell the disciples the following: "Then, Jesus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meet me.”"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동쪽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돌아가거나 북쪽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이와는 반대 방향인 서쪽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동쪽이나 북쪽이 아닌 서쪽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과 다르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낙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7 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침통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두 사람이 많은 곳 중에서 굳이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을 만날 곳이라고 하신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이 둘도 낙심한 채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Galilee was in the northern part of Israel. To go from Jerusalem to Galilee, people had to go around the city of Jericho in the east or go through the city of Samaria in the north. But these two disciples were heading to Emmaus in the west. Though these two disciples heard the news that Jesus was resurrected, they did not believe and were heading to Emmaus to the west, not to the east or the north. They were going to Emmaus against Jesus' command, because they were discouraged. Verse 17 says: "They stood still, their faces downcast." The two were going to Emmaus out of sadness and despair because Jesus had died. Perhaps Emmaus was their home town; otherwise, no apparent reason for them to go to such a small town as Emmaus. They would have had some hopes of Jesus. So, when they learned of Jesus' death on the cross, they must have been devastated, as if it was all over. Both the two and other Apostles did not believe when the women said that Jesus asked them to meet Him in Galilee, and out of despair, the two were heading back home Emmaus.

그런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인들과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5-16 절).

As they were talking about Jesus' death on the cross and the women telling about the risen Jesus and other rumors, all of a sudden, Jesus appeared and walked along with them: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Jesus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vv. 15-16).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제자였음을 13 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도 그럴꺼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25 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5 절).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마음이 무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이 부류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Jesus came up by them, walked along with them and talked with them, but they did not recognize Jesus; and that their eyes were covered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Jesus]. Verse 13 implies that these disciples were close disciples of Jesus. And later on, they finally recognized Jesus. It wasn't that they did not know the face of Jesus. They did not recognize Jesus because their eyes were blindfolded; the eyes of

their faith were obscured. They heard a rumor that Jesus was raised again, but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it, they did not think it's possible at all, they did not recognize Jesus who appeared before them. Jesus said to them in verse 25: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Jesus called those unbelievers foolish, dull-minded, and these two disciples were included.

성경을 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인식의 문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수 차례에 걸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부활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눈을 가린 것처럼 그런 가능성에 대해 차단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그 외모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리셨다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해설을 더하지 않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The ability to see the risen Jesus was more than a visual sensory processing. Those who did not believe and expect that Jesus would rise from the dead could not recognize the risen Jesus even when He appeared to them. These two disciples would have been there many times when Jesus taught about His death and resurrection. However, because they had no faith or expectation in Jesus' resurrection, they had no spiritual eyes to see the resurrected Jesus. They self-blocked the possibility of seeing the risen Jesus, as if they blindfolded themselves. Because they saw Jesus' body in their own eyes, the resurrection of Jesus was unthinkable or unbelievable for them. In the Bible are there many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who did not recognize the risen Jesus at first. Some people say this was because Jesus' physical appearance was changed after the resurrection, or God intentionally kept people from recognizing Him. Since the Bible describes no further details,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 Nonetheless, one's inability to recognize the risen Jesus Christ is sure to manifest one's own spiritual darkness.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된 지난 두 주일의 설교를 통해 올해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새롭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무덤덤하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게 아직 확신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믿기에,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적당한 선에서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길에 올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가까이 내 삶 속에 오셨음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론 마음에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채 예수님 없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Our faith journey has parallels to that of the two disciples. Countless of times we heard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we know it well. In the past two weeks, we once again heard the messag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essage has become so familiar to us that we take it for granted, or we don't take it seriously enough, so we side with fellow believers without building up our own faith. But such responses are far from meeting the risen Jesus Christ personally and walking along with Him. What if we praise and worship the risen Jesus Christ on Sunday but from Monday to Saturday we live like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Despite His

desire to come into our life, walk along with us, speak to us, and give us a nudge in the Holy Spirit, we will likely live the week blindfolded, and without Jesus.

본문 말씀 17 절에서, 제자들의 표정이 침통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침통할 수 없습니다. 슬픈 기색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들었어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여겨도, 그 분이 실제로 오늘 내 곁에 오셔서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길 원하는 그 실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인생의 절망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 아파하면서 왜 나는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냐고, 주님은 언제 나타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실거냐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Verse 17 says the disciples' faces looked sad and painful. If they had believed in the risen Jesus Christ, they would not have been sad. How about us? We may have heard about the risen Jesus Christ, like these disciples had, so we could see that as a real possibility. And yet, until we can live out the fact that Jesus Christ is in our lives and He wants to meet us personally, our faith would be limited. However long we are called a Christian, we would still have pain and despair in the midst of life's challenges, wondering why we are walking this road alone, and when the Lord would come to the rescue.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원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이 두 제자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크게 박혀서 그것이 상처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고 믿음의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were spiritually blinded, not because they lacked in knowledge about the risen Jesus Christ. They had followed along with Jesus, witnessing His public ministries and hearing His teachings. They had already heard about the risen Jesus Christ, but neither the Apostles nor these two disciples believed it. The problem was not their lack of knowledge, but their weak faith. Overwhelmed by the emotional pain associated with Jesus' death on the cross, they fell into despair. If we do not connect our knowledge about the risen Jesus to our faith, just like these disciples whose problem was weak faith, not the lack of knowledge, we cannot not see Jesus Christ who is right by us.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부족하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미국에 와서 영어실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필요한 만큼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 부족한 믿음이 깨지고 의심이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So, what is at issue is our faith, not the lack of the Gospel or God's Word. The problem is not with the Lord, but with us. When people living in America are having the difficulty speaking English, no one would argue that it is wrong to use English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y should learn the language and culture. Likewise, since the problem is with our faith, we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faith. If Jesus is unseen in our eyes, our weak faith and doubts must be broken through the Gospel of the cross. But this can only be done by the resurrected Jesus, not by our own strength.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까지 시선이 옮겨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는 6 시간만 머물러 계셨습니다. 무덤에는 3 일만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겁 많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에서 위대한 사도로 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 그제서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Often times we only gaze on the suffering of the cross, hence, we do not see the resurrected Jesus. If we are only focused on the cross, suffering, or death, our faith is only half way through. We must move our gaze to the fact that Jesus Christ has overcome the death, has been raised, and is still with us. Jesus was on the cross for six hours; and stayed in the tomb for only three days. It was after encountering the risen Jesus that these disciples, who were timid, deficient in understanding, and untrustworthy, were transformed to the great Apostles. For Jesus' salvation ministry was completed, not at his death on the cross, but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the disciples were enabled to preach the gospel boldly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Likewise, we are enabled to live out Jesus' teachings by encountering and experiencing the risen, and living, Jesus Christ in our life. We then can have the joy of walking with the Lord.

오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려고 나타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된 요소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In today's verses, Jesus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to open their eyes. Still applicable today, the text offers us two ways in which our spiritual eyes are opened to experience the companionship of Jesus.

첫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31 절을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2 절)

First, we let the Lord work in us when we read His Word. Verse 31 says that "When their eyes were opened, they recognized Jesus." And the disciples said to each other: "Didn't our hearts become warm [in us] when he spoke to us and interpreted the Scriptures on the road?" (v.32)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1 대 1 과외 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풀어주셨는지 27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먼저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에야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떤 설교자나 웅변가도 자신의 말씀씨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할 순 없습니다.

It was like Jesus giving the two disciples one-on-one tutoring as described in verse 27: "And Jesus explained to them what had been written about him by Moses and all the prophets throughout the entire Bible." We realize two important facts in the text: Jesus too first taught spiritual truths through the Bible, and the hearts became warm when Jesus opened and taught the Word. Through the Bible can we meet personally the resurrected son of God, Jesus Christ, even today. As we learn and listen to the Word, the Lord will make our hearts warm and

pounding and reveal Himself to us. No preacher or eloquent speaker by his own speaking skills can offer us faith in Jesus, the Son of God.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사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읽어내겠다, 연구해서 깨닫겠다라는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때는 페이퍼를 쓰듯이 건조한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말씀이 건조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전해지는 말씀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먼저 은혜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But here's one important thing. The Lord must allow us to realize. Their hearts became warm when the Lord had explained the Word to them. To meditate on the Word, we cannot simply depend on our knowledge or reasoning. Although God uses them, we must recognize that it is God who gives us the grace to make us realize and our heart moved. And we should humbly read and listen to the Word as we seek help from the Lord. The idea that we can read, study and realize the truth of the Word has a limit. When preparing for a sermon, I sometimes wrote it with a dry heart and mind, as if writing an academic paper. At times, the Word felt dry to me, which made me wonder how I could possibly be a conduit for grace. That happened when I have not prayed enough, when I only read the Word with my head but without prayer. In such times the Word spoken seemed powerless. It was because I did not receive grace myself first. But when I prayed and meditated with a yearning heart that "God, help me, I cannot do it with my power," God gave me grace.

우리 모두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제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해를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 머리가 아닌 영혼에 심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경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 묵상이 사역하기 위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 자체가 사역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I hope that we all read, listen to and meditate the Word with humility by confessing: "Lord, I am longing for the grace that you will plant in my soul through your words, and for your help with what I cannot comprehend in my head." I believe that as we acknowledge that grace is from the Lord and seek His help, He will open our spiritual eyes and help us understand the Word. Being able to look on Jesus, instead of looking for Him to gain knowledge of the Bible, is the most important ministry. Meditation of the Word is not intended to empower the ministry but it is the ministry itself. The greatest and most important ministry is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Lord who helps us understand the Word.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풀어주심이 말씀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며 펼칠 때 우리가 지적으로 노력해도 안되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 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눈을 여십니다.

The Holy Spirit helps us understand the Word. Jesus Christ has promised to send us the Holy Spirit as a helper, and the Holy Spirit indeed came to his disciples after Pentecost. As we unfold the Word with our prayer, the Holy Spirit, the resurrected spirit of the Lord, gives us the insight and enlightenment that are unattainable by our intellect. Our Lord helps us understand His Word; He opens our eyes.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When the disciples experienced that, their hearts became warm. Realizing through His Word, they then understood that Jesus Christ was with them. Once realizing He was with them, their hearts melted and became warm.

누가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아닌 두 평범한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사도같은 사람들뿐이 아닌 평범한 모든 제자에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만남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데 마음이 열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In the Gospel of Luke, Jesus appeared to two ordinary disciples, instead of His Apostles. This may encourage us. For this means that in addition to the Apostles, ordinary disciples like us can have our eyes open by encountering Him. He is searching for ordinary people like us. He is searching for those who are open-minded in search of the gift of His grace.

둘째, 주님과 함께 시간보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어느새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이 더 멀리 가시려고 할 때, 29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29 절).

Second, we ought to look forward to spending time with Jesus Christ. In today’s scripture, it reads: “As they approached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Jesus continued on as if He were going farther.” Then they suggested that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tay with us, for it is nearly evening; the day is almost over.”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v.29).

그들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더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까? 주님을 붙잡고 만류해서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갈망합니까? 주일이 아닌 매일매일의 내 삶에 주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삶의 매일매일의 자리에 걸어주시라고 만류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일주일에 예배 한시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없는 날들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매일매일이라는 엠마오로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습관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종교적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They urged Him to stay with them. They wanted to stay with Him even though they didn’t know who He was. We ought to look forward to staying with Him and being with Him. At this worship service do you only know that He is with you, or are you also longing to meet Him personally? Are you hoping to urge Him to stay with you in everyday life? Do you want Him to stay with you in daily life and walk together with you in every step of life? Without such hopes, we would only have Jesus with us in Sunday worship services and all other days we would be without Jesus. We would become like the two sad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Our worship of

God would become nothing but a religious habit and duty. I hope that your desire to hold onto and spend time with Him is restored.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를 찾아나서지만, 어떤 사람은 다소 수동적으로 혹은 잘 모르는 상태로 그 자리에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다른 열정과 동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던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조금 더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갈급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자리에 나가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고 주님이 계실 것 같은 곳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향한 눈이 뜨이지 않아 잘 모르는 때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진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Some people actively look for the risen Jesus Christ and stay with Him, whereas others stay with Jesus Christ passively or without realization. But they could all taste His grace because they were with Him at the time of grace. I believe that we need such aspiration as asking for His presence in order to open our eyes toward Him. I encourage you to come to worship services and Bible study classes, and other activities of God's blessing. We ought to be the disciples staying in places where we can meet Jesus. I hope that we could be like the two disciples who held onto Jesus Christ even though they may not have realized they were with Him.

주님은 이미 내 삶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자 매일매일의 중요한 미션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드린 고백이, 그 분에 대한 지식이,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할지가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 look upon Him and experience Him, as He is already in our life and walks with us. I also hope that living with Him becomes the most important task in our faith life and daily mission. Thus, how to live out our confession and knowledge about Him in our daily life should be of interest to us.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름부으신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있는 날선 검과 같은, 내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을 확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가 상징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자리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엠마오는 우리가 가야할 곳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삶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The two disciples were changed after they experienced heart-warming. Life of those who experienced God's Word, which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and penetrates even to the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s never the same. Life transforms. The two disciples changed their destination and went to Jerusalem. It was late at night, as they ate dinner with Jesus Christ; but as soon as they finished the dinner, they got up and returned at once to Jerusalem. Emmaus stands for *the place of old self*, in which living without Jesus may feel comfortable. However, Emmaus is not the place for us to be. Once we experience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through His Word and revival in our heart, our life transforms.

그리고 그 전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3 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5 절에 보면,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고 되어 있습니다.



And such transformation would lead us to where Jesus Christ wants us to be. The two disciples became the "witnesses of the risen Jesus Christ." Verse 33 reads: "They got up and returned at once to Jerusalem." In verse 35: "Then the two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way, and how Jesus was recognized by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되돌아 간 예루살렘 성은 그들에게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직 그대로 권세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나 그 군중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을 것이고 도전이 기다리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해오셨고 함께하실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For the two disciples, Jerusalem was a dangerous place. The high priests or scribes or Pharisees who killed Jesus Christ were still in power and Roman soldiers and the crowd were still there. It was a place of danger and challenge. Nevertheless, they bravely went back to Jerusalem because, even though the world remained unchanged, they were changed. It was because they, with their eyes wide open, realized the resurrected Jesus was with them all the time and they believed He would continue to be with them.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36 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열 한 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더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 여 명 중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 대표적인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These two disciples must have met the risen Jesus Christ at Galilee. In verse 36 and those to follow, they met the resurrected Jesus one more time along with the Eleven disciples. They must have been among 120 who were baptized during the Pentecost. Further, they must have been the members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who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y must have lived the life fully as the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할 "나의 엠마오"는 어디인지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을 걸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엠마오와 같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같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We should be in Jerusalem, not Emmaus. Let's ask ourselves where our 'Emmaus' is, from where we should make a turnaround. I hope that you ask God to give you eyes of faith, so that you can recognize Him who comes and talks to you. I hope that you may all come to the place of worship, the place of word, and the place of mission, like Jerusalem where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was, as opposed to Emmaus where He was not.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을 함께 걸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밤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신 그 확신과 부활의 찬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길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 삶을 대면하고 헤쳐 나갈 상태와 지혜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The risen Jesus Christ walks with us today. He eagerly wants to give us the same assurance that made the two disciples to return to the place of faith that night and hope of splendid resurrection. I hope that you would wrestle with God's word; you pray to Jesus Christ that you can see truth in the Bible; you keep growing through word and prayers, and you gain more knowledge about God. Then, the power of love and resurrection of God would fall on your hearts. Then it will pour the wisdom to face life bravely on your intelligence, sensibility and will.

어려운 문제들은 내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마지막 그 날에, 우리의 괴로움과 약함은 사라지고 인생의 초라함은 영화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Life's challenges have been before us and will be in the future as well. However, as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with us, we can sufficiently deal with the challenges. When we finish our dues on the Last Day, our pain and weakness would disappear, and our shabby life would become splendid and honorable. I pray that you would live in victory by holding fast to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who will faithfully lead you.